

# 노년기 남편을 둔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 인적지지와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명화\*, 이윤정\*\*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노인복지학과 박사과정\*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노인복지학 전공 조교수\*\*

## The Effect on the Marital Satisfaction to marriage immigrant wives whose spouse of in an old age : Focusing on Social service and Human support

Myeong-Hwa Lee\*, Yoon-Jung Lee\*\*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 Dept. of Senior Welfare. The Doctor's Course\*  
Associate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for the Elderly, Hoseo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한국의 인구 고령화현상과 다문화가족 증가추세에 주목하여 남편이 노년기에 진입한 ‘노년기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 정도를 파악하고, 인적 지지와 사회 서비스의 결혼만족도 영향력 검증에 대해 시행되었다. 분석에는 2009년 실시된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자료에서 2009년 현재 남편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여성결혼이민자 236케이스를 사용하여 기초통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노년기 남편을 둔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는 5점 만점에 3.9점이며, 어려울 때 의논상대는 모국인형이 36.6%로 가장 많으며, 모국가족과는 ‘주 1~2회 이상’ 연락하는 경우가 44%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어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 영향변인으로는 차별경험이 없을 때, 건강상태가 좋을 때, 어려울 때 의논상대가 한국인 일 경우, 모국가족과 ‘년 1~3회’ 연락할 경우, 사회적응교육을 받았을 때 결혼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제어** : 노년기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 인적지지, 사회서비스, 결혼만족도

**Abstract** This study is focused on increasing of population aging and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This study is conducted to figure out the marital satisfaction of marriage immigrant wives having elderly husband and to verify the effect of the social service and human support. This analysis was used in the '2009 National Multicultural Families Survey' data is at least 65 years of age, married immigrant spouses wife 236 case. Descriptive statistics were performed for statistical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techniques. The effective variables of the marriage immigrant wives include the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subjective health condition, education for social adjustment, whether an adviser is Korean when they face difficulties, and whether the frequency of contacts made with their families in homeland is more than once to three times a year. Analysis shows that these things works as the effect variable of marital satisfaction.

**Key Words** : Multicultural Families of in an old age, Marriage immigrant wives, Human support, Social service, Marital Satisfaction.

Received 20 July 2014, Revised 25 August 2014

Accepted 20 September 2014

Corresponding Author: Yoon-Jung Lee(Hoseo University)

E-mail: yoon2525@hanmail.net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 1. 서론

한국의 인구 고령화가 우려되는 이유는 타 국가와 비교하면 그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이 자료를 보면, 프랑스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 도달기간은 115년, 미국은 73년이 걸렸으며, 1994년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도 24년이 걸렸다[47].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불과 17년만인 2017년 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2028년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 중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가 예견됨[47]에 따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파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족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노인 인구의 증가는 노인과 노년기에 대해 사회적, 학문적 관심뿐만 아니라 정책적 관심과 집중이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한국사회 다른 한편은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서로 다른 문화권의 남녀가 가정을 이룬 다문화가족의 증가 추세이다. 2008년 총 결혼 건수의 11.1%가 국제결혼이며 이 중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 비율이 76.1%에 달한다[45]. 이러한 추세로 2020년에는 다문화가족이 100만 명에 가까울 것으로 예측된다[50].

대체로 결혼 초기 부부는 변화된 생활 적응과 부부간 적응 및 배우자 원가족과의 적응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을 맞게 된다[16]. 결혼이주여성들은 이와 더불어 한국생활 적응이라는 또 다른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국제결혼으로 인한 문화적 이질감, 상이한 가치관, 일상생활양식 변화 등의 어려움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과 성공적인 결혼생활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42]. 또한, 보편적으로 부부의 연령, 문화, 교육수준 등이 서로 비슷한 계층일 때 결혼생활이 안정적이고 지속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는데, 2009년 이혼신고 자료에서 외국인 아내와의 연령차가 적은 한국-중국 부부에 비해 연령차가 큰 한국-몽골, 한국-필리핀 부부의 평균 결혼지속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4]. 이와 같은 결과로 부부간 연령차가 큰 일부 다문화가정의 경우 결혼생활안정을 저해하는 위험요소가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국제결혼이 성행한 지 20여 년이 지났으므로 초기 다문화가족 한국인 남편들의 노년기 진입은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다. 생애주기 중 신체·사회적 기능이 약화하는

노년기는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그 가족에게 적응기간과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결혼 당시 부부간 연령차가 큰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남편의 고령화는 결혼생활의 또 다른 갈등요소로 나타날 수 있다.

1995년 이후 한국의 국제결혼 양상은 만혼기의 한국 남성과 젊은 외국인 여성 간의 결혼비율이 훨씬 높은 편인데, 이는 그동안 난립한 국제결혼중개업체가 결혼을 주선하면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23]. 결혼이주여성 중 24세 이하 저 연령층의 62.8%가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을 한 경우이다[5]. 국적별로는 중국(한족)은 19.6%, 베트남은 66.4%, 필리핀은 19.3%, 캄보디아는 84.1%가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이다. 일본출신 국적의 70%는 종교기관을 통해서 결혼한 경우이다[5]. 결혼중개업체나 종교기관을 통한 결혼은 사실상 남편의 정보만 제공 받고 결혼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상당수의 결혼이주 여성이 남편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 없이 한국으로 이주한 경우가 많아 원만한 결혼생활유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경우 이혼 혹은 사별까지의 기간이 평균 4년 1개월로 가장 짧았으며, 남성결혼이민자의 경우도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배우자를 만난 경우 이혼 혹은 사별까지의 기간이 3.0년으로 가장 짧게 나타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5].

다문화 부부의 결혼생활 어려움을 최근의 또 다른 경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001년 국제결혼 자의 이혼 건수가 1,694건(총 이혼 중 1.3%)이던 것이, 2007년 8,294건(총 이혼 중 6.7%)으로 약 4배 이상 증가, 2011년에는 11,495건(총 이혼 중 10.1%)으로, 불과 10년 사이 10% 가까이 증가하였다[45]. 이혼·별거의 이유를 보면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7.0%를 제외하면 ‘성격이상’, ‘경제적 무능력’, ‘외도’등 남편과 관련된 문제가 93.0%를 차지해 이혼·별거 중인 결혼이주여성들의 대부분은 남편과의 갈등이 주원인임을 알 수 있다[38]. 이처럼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생활만족은 그들이 가장 의존하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의해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13].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성공적인 한국사회정착을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배우자만족이며,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 적응지원 시 배우자와의 친밀하고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결혼이주성과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2006년부터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사회통합 지원 대책'을 기반으로 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이 여성가족부를 통해 전달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결혼이민자의 가정생활 적응이 신속히 이루어져 안정된 모습으로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한 이들의 결혼만족감을 높여 성공적인 한국생활적응과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일 것이다. 이에 학계에서는 이들의 결혼만족 관련 연구들이 여러 차원에서 보고되었다. 하지만 그 중 다문화가정의 고령화에 주목하여 남편이 노년층에 진입한 '노년기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혀 없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결혼생활안정과 유지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결혼만족을 노년기 남편을 둔 결혼이주 여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최근 몇 년간 다문화가족에 제공되어온 사회지 지 서비스가 노년기 남편을 둔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정서적 친밀감을 제공하는 인적지 지의 경향과 영향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기 남편을 둔 결혼이주여성의 인적지 지와 사회서비스 수혜경험, 결혼만족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본다. 둘째, 노년기 남편을 둔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무엇인지 파악한다.

연구 자료로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활용하였다. 결혼이민자 배우자인 한국 남성의 나이가 2009년 현재 만 65세 이상 인 경우만 선별한 후, 연구대상인 결혼이주여성의 응답을 중심으로 결혼만족도에 인적지 지와 사회지 지 서비스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특징은 다문화가정 내 고령화에 관심을 가지고 시도되었다는 점이다. 특별히 노년기 남편을 둔 결혼이주여성만을 선별하여 시도한 점은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찾아볼 수 없어 그 차별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구결과는 다문화가족 부부 연령대에 적합한 서비스 개발과 개입의 우선순위 선정에 일조할 것이다

## 2. 선행연구

### 2.1 노년기에 속한 다문화가정: 결혼 · 이혼 양상

통계청의 최근 보도 자료에 의하면, 1990년 불과 1.2%

이던 국제결혼 비율이 2005년 9.9%, 2008년 11.0%로 20여 년간 1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45]. 특히 한국의 국제결혼 양상이 타 국가와 뚜렷이 비교되는 점은 국제결혼유형 중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 간의 결혼 비중이 확연히 높다는 점이다.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의 국적은 중국이 34.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미국, 우즈벡, 태국, 몽골 순으로 동남아시아계 여성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44].

한편 남성결혼이민자가 전반적으로 비슷한 연령층의 여성과 결혼<sup>1)</sup>하는 것과는 달리 여성결혼이민자는 배우자와의 연령차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2009년 다문화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여성결혼이민자의 평균나이는 33.3세였으며 한국인 남편의 평균나이는 43.2세로 약 10세가량의 연령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적별로는 베트남과 캄보디아인의 경우 가장 큰 차이를 보여 17.0세 이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

위와 같이 결혼이주여성들의 특징적 현황을 통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연령증가에 따라 생애주기가 변화되고 있음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설동훈 외(2009)는 2010년에 50세 이상 결혼이민자가 14.7%에서 2020년에 이르면 22.1%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48]. 초창기 부부 연령차가 큰 국제결혼부부의 상당수 남편이 중년기에 속하며 노년기에 속한 비율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인생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고령자는 신체·정신적 기능이 약화하고 사회적 역할과 지위변화가 불가피하다. 또한, 가족생활주기 면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부부간 생애주기가 달라 각각의 발달과업 또한 달라져, 안정적 결혼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결혼 초 가족생활과업은 부부 역할에 대한 적응이 주된 과업이다. 다문화 부부는 언어적응과 일상생활 및 관습에 대한 적응 또한 매우 중요하게 거론된다. 따라서 이들 부부의 낮은 환경과 문화차이, 더불어 세대 차이로 인한 결혼생활 적응의 어려움은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거론되고 있다[30]. 실제로 아내에 비해 나이가 많은 남편의 권위적이고 지시적 태도로 인한 불만[17]과, 젊은 아내에 대한 한국인 남편들의 막연한 위기감과 가출에 대한 의혹들이 폭력적 행위

<sup>1)</sup> 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 부부들의 평균나이는 남성결혼이민자 평균연령 41.6세, 한국인 배우자 평균연령 40.3세로 부부간 연령차가 약 1.3세이다(2009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로 나타나 부부간 갈등을 유발한다고 보고하고 있다[17]. 베트남여성과 국제 결혼한 한국남성의 결혼만족도를 연구한 노충래·강현주·최민지[13]는 부부연령차가 평균 17세 정도이며 생활습관, 사고방식 및 가치관의 차이와 성생활, 애정문제 등에서 부부관계 갈등정도가 더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심한 나이차는 이러한 부분에서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한다.

이처럼 다문화 부부는 일반 한국인 부부와는 달리 부가적인 발달과업과 적응요소로 인해 그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와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그 어려움 중 일부는 부부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여 가족의 건강성을 저해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실제로 통계상의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다문화 부부의 이혼건수는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고 있다. 2003년 총 이혼 중 외국인과의 이혼율이 불과 2.0%였으나, 2007년 8.3%, 2011년 11.5%, 2012년도에는 10.9%로 잠시 낮은 비율을 보였으나 그동안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특히 국제결혼부부의 이혼 중에서도 한국 남성-외국인 여성과의 이혼율이 한국 여성-외국인 남성과의 이혼율보다 매년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46]. 김두섭(2012)은 중국,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의 동남아와 개발도상국 출신 여성들의 결혼 안정성이 낮아 결혼지속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라고 하였다[4]. 통계자료에서도 한국 남성과 이혼한 외국여성의 국적이 중국(50%), 베트남(27.1%), 필리핀(5.7%) 순으로 상위 3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82.9%로 중국과 동남아국가 여성들의 이혼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46]. 또한, 한국 남성-외국인 여성의 이혼을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광역시는 2~3%이었으나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등의 농촌 지역은 4~6%로 대도시보다는 농촌 지역의 이혼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46]. 길어진 노후생활로 노년기 부부관계는 남은 노후생활 적응에 중요한 영향요소가 된다. 일부 다문화 가정의 이혼율이 지속된다면, 혼자된 노년기 남편들의 노후생활 어려움이 예상되며 혼자된 결혼이주여성 또한 한국 내 지지기반이 약하여 한국 여성들에 비해 이혼 후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은 최근 20여 년간 조손가정이 2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인 자녀의 사고, 질병, 실직, 이혼 혹은 사망 등

의 이유로 조손가정이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다. 급속히 증가하는 이혼건수와 조손가정 증가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18], 조손가정 내 다문화부부의 자녀 수 증가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율 증가와 농촌지역 다문화가정의 높은 이혼율, 여기에 농촌 내 조손가정 증가현상은 ‘다문화 조손가정 발생’과 같은 사회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양상의 문제로 이어지는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율 증가는 그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해 사회적·학문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 2.2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일반적으로 결혼만족도 개념은 결혼생활에 대한 부부의 행복과 만족에 대한 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현상[40]으로, 가정의 안정과 해체 혹은 전반적으로 부부의 결혼생활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결혼만족은 결혼관계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여 개개인이 느끼는 만족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14]로 결혼생활, 결혼적응, 결혼의 질 등 학자에 따라 다양한 용어로 사용한다. 이것은 결혼만족 자체가 역동성을 내포한 개인의 매우 주관적 감정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35],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학자마다 각기 다르게 정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형 결혼만족도 척도개발을 위해 심도 있는 이론적 고찰을 한 정형숙(2001)은 ‘결혼만족도는 부부관계에서의 패턴으로 다양한 부부 상호과정에 의한 결과개념이며 사회 인지적 관점에서 파트너나 관계에 대한 태도로 만족에 대한 개인의 평가’로 설명한다[36]. 이것은 결혼만족을 배우자와의 상호관계에서 발생한 태도와 만족감으로 간주하여, 다른 결혼만족개념들에 비해 부부 양자 관계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해석된다. 결혼만족측정 도구를 평가한 박태영(2000) 또한 다양한 결혼만족 개념들이 공통으로 의미하는 것이 ‘결혼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배우자의 주관적인 평가’라고 하였다[19]. 이후 조혜선(2003)은 ‘사회적 맥락 속에 존재하는 개인이 부부라는 이차적 관계에 대하여 느끼는 주관적 선호’로 정의하면서 부부간 관계성의 질에 초점을 두고 연구한 바 있다[39]. 이처럼 결혼만족의

개념은 다양한 차원으로 사용되는데, 본 연구의 대상인 결혼이주여성의 경우는 결혼으로 인하여 타 국가로 이민을 온 경우이다. 따라서 그들의 결혼생활만족의 상당 부분은 배우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이 복합되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다문화가족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혼만족도 개념은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감정의 집합체로 개인의 주관적인 선호도'로 정의할 수 있다.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한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몇 년간 결혼이주여성 대상의 연구들이 시도되면서 이들의 결혼만족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한국인 부부들 대상의 결혼만족연구들은 인구사회학적 요인 뿐 만 아니라 자아 존중감, 스트레스 등의 개인적 요인과 의사소통과 갈등대처방식 등 부부관계요인과 관련된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상대적으로 지지적 자원(원가족지지, 사회적지지)과 문화요인(문화적 정체성, 문화적응)들의 영향을 고려했던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반면 국제결혼관계의 경우는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적요인과 관련된 결혼만족 연구들이 많으며, 한국에서의 가족관계는 시부모나 친인척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들이 많은 편이다. 그리고 사회적지와 문화적 요인과 관련된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한국인 여성의 결혼만족 영향요인별로 살펴보면, 심리적 요인으로 스트레스와 직업만족, 우울 그리고 배우자와의 성생활만족도, 상호관계요인인 긍정적 의사소통, 원가족 정서적 지지, 역할갈등 등을 결혼만족 영향요소로 밝혔다[11][21][34][49]. 또한, 인구 사회적 요인들로 연령, 자녀 수, 학력, 소득 등의 변수들이 주로 거론 되었다[21][41][10]. 그러나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요인들은 한국 여성들과는 다소 다른 영역으로 접근되고 있는데, 인구 사회적 요인 외에 문화적응과 사회적 지지에 관한 요인들이 고려되고 있다.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와 관련해서는 시댁가족과의 관계와 원 가족과의 건강성과 교류, 그리고 친구나 이웃의 지지에 관한 변인들이 거론되었다[22][6][37][33][27]. 이들 변인은 주로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결혼만족도 또한 긍정적이라는 결과들이 많았으나[22][37][12][27][33], 몇몇 연구들은 상호관계 변인들 중 일부 변인들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6][15]. 다문화가족이나 결혼이주여성들 대상의 결

혼만족도 연구를 연구자별로 살펴보면, 먼저 김은경(2008)은 중소도시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영향요인을 파악했는데, 남편에 대한 사전정보일치, 결혼생활의 어려움, 부부가 함께 교육에 참여한 경험 변인을 영향 변인으로 추출하였다[6]. 경남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을 연구한 최정혜(2012)는 결혼정보일치 정도와 남편의 학력과 직업, 자녀 수, 한국어 능력을 영향 변인으로 밝혔다[40]. 반면, 예천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만족을 연구한 양점도·김춘택(2006)의 연구에서는 나이, 학력, 건강상태, 수입만족, 여가 만족, 세력관계 변인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였다[51]. 한편 그레이스정·임지영(2011)은 결혼이주여성을 한국인 여성과 비교하여 결혼만족도를 분석하였는데, 앞서 언급한 연구들과 달리 연령, 교육, 경제적 어려움, 우울, 의사결정능력, 남편과 아내의 의사소통 방법, 연령차, 한국거주기간과 차별경험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힌 바 있다[2]. 변미희·강기정(2010)은 다문화가족의 인구 사회적 특성이나 아내의 특성보다는 남편의 우울과 다문화수용태도가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임을 밝힌 바 있다[53].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결혼생활만족을 연구한 양순미·정현숙(2006)은 아내의 경우는 자아존중감과 결혼생활적응수준이, 남편의 경우는 결혼생활교육 경험 여부와 자기노출 정도, 부부간 상호작용 정도, 결혼생활적응수준이 유의미한 영향요소인 것으로 밝혔다[54]. 이처럼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한 차원에서 고려되며 그 결과 또한 상이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08년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시행되면서 결혼이주여성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26][6][8][24]. 김은경(2008)과 김혜원·임춘희(2012)는 프로그램 참여 횟수보다 남편이나 가족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 결혼만족이나 결혼효능감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긍정적 결론을 도출하였다[6][9]. 반면 서비스 이용경험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한다[25]. 양적 연구 외에 질적 연구들을 통해 더 면밀히 살펴보면,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생활적응 뿐만 아니라 삶의 의욕이 강해진다고 하여 남편과 가족들에 대한 프로그램 확대를 주장한 연구도 있다[28].

종합해 보면 국제결혼을 한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한국 남편에 대한 만족감이 결혼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그들의 배우자만족을 토대로 한 결혼만족도 영향 요인 탐색으로 인구 사회적 배경 외에, 부부의 특성, 가족 관련 요인, 인적지지 요소 등이 고려된 연구들이 수행되며,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수립된 이후 사회서비스 개입이 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요인의 영향력 검증도 시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연구방법

#### 3.1 자료 및 대상

본 연구의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이민학회가 2009년에 실시한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sup>1)</sup>’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 중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에 관심을 두고자 함으로, 결혼이주여성의 국적 중 빈도가 가장 높은 5개 국가인, 중국(한족),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국적의 결혼이주여성을 연구대상으로 선별하였다. 중국 국적 중 한국에 지지가 기반이 많고 언어소통도 자유로운 조선족은 결혼생활 어려움이 타국에 비해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제외하였다. 이후 연구대상이 노년기 남편을 둔 결혼이주여성이므로 2009년 현재 한국 남편의 연령이 노년기에 속한 만 65세 이상의 경우를 선별해 총 236케이스를 분석 대상으로 추출하였다.

#### 3.2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는 연구목적 수행을 위해 SPSS 17.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결혼이주여성의 인구 사회적 특성과 가족 관련 변인의 특성파악을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인적지지 변인과 사회서비스 변인의 빈도분석을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들의 결혼만족 영향력 분석은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결혼만족의 영향요인 분석은 각 독립변수 군을 순차적으로 포함하는 방식으로 3개의 분석모형을 설정한 위계적 회

귀분석을 하였다. 모형1에서는 인구학적 특성과 가족관계특성을 투입하였으며, 모형2에서는 인적지지요소를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모형3에서는 사회서비스변인 투입 후 효과를 살펴본 후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 3.3 측정 변인의 구성

#### 3.3.1 인구 사회적 변인과 가족관계 변인

인구 사회적 변인으로는 연령, 결혼 전 국적, 학력, 취업 여부, 차별경험, 한국어수준, 건강상태를 포함하였다. 결혼 전 국적의 경우, 전체 자료 중 한국 내 지지기반이 많은 조선족은 제외하고 빈도가 높은 베트남, 중국(한족과 기타민족),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5개국을 선택하였다. 최종분석인 회귀분석에서 동양권인 중국 국적을 기준변수로 투입하였다. 학력의 경우 응답 수가 적은 무학과 초등졸업을 합하여 초등졸업 이하를 기준변수로 하였다. 취업 여부는 비 취업을 기준변수로 하였다. 차별경험은 차별경험 있음은 기준변수로 하였으며, 한국어 수준 변수의 경우는 말하기, 읽기, 쓰기 실력의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건강상태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배우자취업여부는 비취업을 기준변수로 하였다. 배우자 만남 방법은 중개업자를 이용하지 않은 모든 응답을 0으로 처리 기준변수로 하였다. 자녀유무변수는 자녀 없음을 기준변수로 하였다. 부부 연령차는 연속변수로 투입하였다. 그리고 연구자의 관심변수의 명확한 영향력 검증을 위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결혼생활기간, 집 소유 형태, 가구 월평균 소득, 배우자연령, 배우자학력변수는 최종분석에는 제외 하였다.

#### 3.3.2 인적지지관련 변인

인적지지 관련 변인 중 어려울 때 의논 상대 변인에 외국인인을 선택한 경우는 전체 중 1% 응답비율을 보여 제외한 후, 모국인을 선택한 경우는 모국인형, 한국인을 선택한 경우는 한국형, 모국인과 한국인 중복응답 경우는

<sup>1)</sup>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법령에 의거 3년 단위로 진행된다. 2012년 하반기에 본 연구를 시작할 시점에는 2012년도 원시자료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연구 설계 시점에 다문화가족 대상의 전국자료로는 ‘2009년 조사자료’가 가장 최근의 자료였음을 부득이하게 밝힌다. 2009년 조사 당시 다문화가족은 131,702가구였으며 이 중 91.2%가 여성이고 남성은 8.8%였다. 2012년 조사에서는 다문화가족은 283,224가구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여성은 79.8%, 남성은 20.2%로 2009년에 비해 남성결혼이민자가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여성결혼이민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이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 중 출신 국적을 비교해보면 2009년의 경우 중국(조선족) 30.0%, 중국 27.4%, 베트남 21.3%, 필리핀 7.2%, 일본 4.2%, 캄보디아 2.2% 순이었으며, 2012년의 조사결과 또한 여전히 중국(조선족)이 31.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중국 24.1%, 베트남 22.1%, 필리핀 6.3%, 일본 4.6%, 캄보디아 2.3% 순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비중은 2009년에 비해 줄어들었으나 국적별 분포는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Measurement Variables**

Division	variables	Explanation
Demographic Variables and Familial Relations Variables	Age(year)	Age based on 2009 Survey
	Nationality	China=0, Besides=1
	Final education Level	Division 1 : Illiteracy, Elementary, Middle, High, Over College Division 2 : Illiteracy Elementary=0, Middle, High, Over College=1 3 Dummy Variables Made
	Employed status	No=0, Yes=1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Yes=0, No=1
	Korean language Proficiency	the average of speaking, reading, Writing (Score out of 5)
	Health condition	General Health Condition (Score out of 5)
	Spouse's Employed status	Unemployed=0, employed=1
	Marriage by a match maker	No=0, Yes=1
	Having Children	No=0, Yes=1
Human Resources and Support Variables	The age gap with a life partner(Year)	Age Difference between the Marriage Partners (Exception of the case when the Female Partner is older, Unit: Years)
	Advisor when having difficulties	Division 1: Selected Homeland Advisor (Homeland Type), Selected Korean Advisor (Korean Type), Selected Both (Mixed Type), Selected Neither (Isolate Type) Division 2: Isolate Type=0, Homeland, Korean, Mixed Type =1; 3 Dummy Variables Made
Social Service Experience Variables	Contact frequency with families in homeland	Division 1: None, More than 1~3/yr. More than1~2/mo, More than1~2/wk. Division 2:None =0, More than1~3/yr. More than1~2/mo, More than1~2/wk.=1 3 Dummy Variables Made
	Korean Language Education	Taken=0, Not Taken=1
	Social Adaption Education	Taken=0, Not Taken=1
	family consultation and education	Taken=0, Not Taken=1
Dependant Variables	pregnancy and childbirth education	Taken=0, Not Taken=1
	Child Rearing Education	Taken=0, Not Taken=1
Dependant Variables	Marital Satisfaction	Satisfaction Level for Spouse (Score out of 5)

혼합형, 모든 문항에 '아무도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를 고립형으로 범주화하였으며, 최종분석에서는 고립형을 기준변수로 투입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본 연구와 같은 자료를 사용한 김경미(2012)의 연구에서 '정서적 연결망' 변인을 모국인형, 한국인형, 혼합형, 소외형으로 유형화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구성하였다[3]. 모국가족 연락빈도변인은 '전혀 없음'과 '년 1~3회 이상', '월 1~2회', '주 1~2회' 로 범주화 하여 '전혀 없음'을 기준변수로 하였다.

### 3.3.3 사회서비스 변인

사회서비스 변인은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내용을 토대로 그 영역을 총 5가지로 구분하였는데, 한국어교육서비스, 사회적응교육서

비스, 가족상담 및 교육 관련 서비스, 임신 및 출산 관련 서비스, 자녀양육 및 학습 관련 서비스 중 각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를 기준변수로 하였다.

### 3.3.4 결혼만족도변인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결혼만족도 변인은 2009년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 문항 중 '배우자 만족 정도' 5점 리커트 척도를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결혼만족도 척도로 '배우자만족 정도'를 사용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결과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적<sup>1)</sup>이 중국(한족)이 27.3%, 베트남(19.5%), 필리핀(6.6%), 일본(4.1%), 캄보디아(2.0%) 순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여 이들 상위 5개 출신 국적의 여성을 연구대상으

<sup>1)</sup> 중국 국적 중 조선족은 30.4%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나, 언어소통이 가능하고, 이미 한국 내 지지기반이 많아 결혼이주여성의 특성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많은 관계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로 선택하였다. 이들 국가 중 베트남과 캄보디아 출신 국적은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이 가장 많았고, 일본과 필리핀의 경우는 종교기관을 통한 결혼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결혼중개업체와 종교기관을 통한 경우 배우자의 일부 정보만 알려진 채 결혼과 동시에 한국생활을 한 경우이다. 따라서 결혼생활 적응에서 상대 배우자에 대한 의존이 높을 것이며, 부부친밀감이 결혼 이후 형성됨으로 이들의 결혼만족도는 배우자에 대한 만족 정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본다. 이에 본 연구의 결혼만족 개념을 정현숙(2001)의 '결혼만족도는 부부관계에서의 패턴으로 다양한 부부 상호과정에 의한 결과개념이며 사회 인지적 관점에서 파트너나 관계에 대한 태도로 만족에 대한 개인의 평가'에 따른 관계로, '배우자만족 정도'를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36]. <Table 1>은 최종분석에 사용된 변인을 정리한 내용이다.

## 4. 연구결과 및 해석

### 4.1 연구결과

#### 4.1.1 인구사회적 특성

<Table 2.1>, <Table 2.2>의 연구대상자의 인구 사회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65세 이상의 노년기 남편을 둔 결혼이주여성의 연령대는 50대가 26.3%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40대 21.6%, 30대 18.6%, 60대 15.7% 순이다. 결혼 전 국적은 중국(한족과 기타민족)이 53.8%로 가장 많은 수이며, 다음으로 베트남 25.8%, 필리핀 9.7%, 일본 6.4% 순이다. 교육수준은 중졸 32.6%, 고졸이 33.1%이며, 60.5%가 현재 비취업 상태였다. 대상자의 한국어 실력은 한국어 말하기, 읽기, 쓰기의 전체 평균이 3.3(SD=1.1)이며, 전반적 건강상태는 3.4(SD=1.1)이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은 전체 25.3%로 차별받지 않음 67.4%보다 적었다.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대상자의 25.8%는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2006년 다문화실태조사에서 사회적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30.2%와 비교했을 때 크게 변화되지 않은 수치이다. 그리고 연구대상자의 가족 관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배우자를 만난 방법은 결혼중개업자를 통해

서가 29.2%로 가장 많았다. 배우자 취업 여부는 58.1%가 현재 취업상태로, 2012년 고령자 통계에서 65세 이상 남성취업상태 40.6%보다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결혼 생활기간은 평균 7.7년(SD=10.2)이며, 그중 5년 이하가 55.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10년 21.2%로 나타나 노년기 남편을 둔 결혼이주여성이지만 가족생활주기에 서는 가족형성기 및 가족확대기에 속해 있었다. 부부의 연령차는 평균 22.7세(SD=13.2)로 10세~19세차가 31.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세 이상 차이 26.3%, 20~29세 차이 25.8%, 10세 미만 차이는 16.5%로 나타났다. 그리고 배우자의 연령은 평균 69.3세(SD=5.0)로 65~69세가 72.0%, 70~74세 13.6%, 80세 이상인 경우도 5.5%로 나타났다. 노년기 남편을 둔 결혼이주여성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남편과의 연령차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4.1.2 노년기 남편을 둔 결혼이주여성의 인적지지

<Table 3>은 연구대상자의 인적지지 정도이다. 어려울 때 의논 상대가 모국인만 있는 경우를 36%가 선택하였으며, 비슷한 비율로 한국인을 선택하였다. 모국인/한국인 모두 응답한 경우는 6.4%, 의논 상대가 없다는 경우도 15.7%로 나타났다. 모국가족 연락빈도의 경우 44.1%가 주 1~2회 모국가족과 연락을 취하고 있었으나, 전혀 교류가 없는 경우도 7.2%에 이른다.

노년기 남편을 둔 결혼이주여성들은 모국인과의 정서적 지지는 낮은 수준이나 한국인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경우는 좀 더 높은 수준이며, 모국인/한국인 모두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는 많이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모국인과의 강한 정서적 연계를 하는 경우가 절반에 가까운 비율로 나타난 김경미(2012)의 연구와, 모국인과의 관계가 주를 이루며 한국인과의 관계는 상당히 제약이 있다는 이용균(2007)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3][29]. 결과에서 정서적 지원을 받을 대상이 전혀 없는 경우가 15.7%로 높게 나타나, 남편의 고령화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지지체계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다.

또한 노년기 남편을 둔 결혼이주여성들 80% 정도는 월 1~2회 이상 혹은 주 1~2회 이상 본국 가족과 연락을 자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해진



<Table 2\_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 Characteristics of Familial Relations of Subjects ( N=236)

Factors		Frequency	%	M (SD)
Age	Undrer 20s'	33	14.0	47yr. (13.7)
	30s'	44	18.6	
	40s'	51	21.6	
	50s'	62	26.3	
	60s'	37	15.7	
	Over70	9	3.8	
	<b>Total</b>	<b>236</b>	<b>100.0</b>	
Nationality	China	127	53.8	·
	Vietnam	61	25.8	
	Philippine	23	9.7	
	Japan	15	6.4	
	Cambodia	10	4.2	
	<b>Total</b>	<b>236</b>	<b>100</b>	
Final education Level	Illiteracy	7	3.0	·
	Elem Grad.	44	18.0	
	Middle Grad	77	32.6	
	High School Grad	78	33.1	
	College Grad.	27	11.4	
	<b>Total</b>	<b>233</b>	<b>98.7</b>	
Employed status	Yes	89	37.7	·
	No	143	60.5	
	<b>Total</b>	<b>232</b>	<b>98.2</b>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Yes	61	25.3	·
	No	159	67.4	
	<b>Total</b>	<b>220</b>	<b>93.2</b>	
Korean language Proficiency	<b>Total</b>	<b>236</b>	<b>100</b>	3.3 (1.1)
Health condition	<b>Total</b>	<b>234</b>	<b>99.2</b>	3.4 (1.1)
Spouse's Employed status	Yes	137	58.1	·
	No	92	39.0	
	<b>Total</b>	<b>229</b>	<b>97.0</b>	
Method of marrigement	marriage mediation agency	69	29.2	·
	family	49	21.0	
	friends	55	23.3	
	religious organization	21	8.9	
	by themselves	21	8.9	
	<b>Total</b>	<b>215</b>	<b>91.1</b>	
Having Children	Yes	67	28.4	·
	No	137	58.1	
	<b>Total</b>	<b>204</b>	<b>86.5</b>	

# All the table, total use except No Answer

<Table 2\_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 Characteristics of Familial Relations of Subjects ( N=236)

Factors		Frequency	%	M(SD)
The age gap with a life partner(Year)	0~9	39	16.5	22.7 (13.2)
	10~19	74	31.4	
	20~29	61	25.8	
	over 30	62	26.3	
	<b>Total</b>	<b>236</b>	<b>100</b>	
marriage Duration (Year)	under 5	132	55.9	7.7 (10.2)
	6~10	50	21.2	
	11~15	16	6.8	
	over 16	15	6.4	
<b>Total</b>	<b>213</b>	<b>90.3</b>		
House ownership	couple(wife, husband)	114	48.3	·
	Spouse's parents lease, rent	22	9.3	
	other	80	33.9	
	<b>Total</b>	<b>236</b>	<b>100</b>	
Average Monthly Income	less than 500.000	39	16.5	·
	500.000~1.000.000	71	30.1	
	1.000.000~2.000.000	52	22.0	
	more than 2.000.000	25	10.6	
	<b>Total</b>	<b>187</b>	<b>79.2</b>	
Spouse's Age (Year)	65~69	170	72.0	69.3 (5.0)
	70~74	32	13.6	
	75~79	21	8.9	
	over 80	13	5.5	
	<b>Total</b>	<b>236</b>	<b>100</b>	
Spouse's Education level	Under Elem.	40	17.1	·
	Middle school	55	23.3	
	High school	74	31.4	
	Over college	43	18.2	
<b>Total</b>	<b>212</b>	<b>89.8</b>		

<Table 3> Human Resources and Support Variables (N=236)

Factors		Frequency	%
Advisor when Having Difficulties	Homeland Type	85	36.0
	Korean Type	78	33.1
	Mixed Type	15	6.4
	Isolate Type	37	15.7
	<b>Total</b>	<b>215</b>	<b>91.1</b>
contacts frequency with families in homeland	none	17	7.2
	1~3/yr.	15	6.4
	1~2/mo.	84	35.6
	over 1~2/wk.	104	44.1
	<b>Total</b>	<b>220</b>	<b>93.2</b>

통신수단으로 비록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으나 모국가족과 자유롭게 교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부의 경우는 전혀 연락이 없다는 결과도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노년기 남편을 둔 연령이 높은 일부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한국거주기간이 길어지면서 본국 가족들 또한 고령이거나 하여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진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4.1.3 사회서비스 수혜경험과 만족정도**

사회서비스 이용경험은 한국어교육이 45.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한국사회 적응교육과 가족상담 및 교육 관련 서비스 순으로 나타났다. 제공된 사회서비스 중 한국어 교육 만족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한국사회 적응 교육과 가족 상담 및 교육이 비슷한 만족도 수준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수혜경험 응답 수가 적은 임신 및 출산 관련 서비스를 제외하고, 4가지 서비스 모두 3.0 이상으로 보통이상의 결과를 보였다. 결혼이주여성들에게는 한국어교육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나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2009년 전체 조사자의 수혜경험 50.6%보다 낮게 나타났다.

**4.1.4 노년기 남편을 둔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

연구의 종속 변수인 연구대상자의 결혼만족도 평균은 3.90(SD=0.90)이며, 각각의 응답 빈도는 만족 41.1%, 매우 만족 26.3%, 보통 22.9%, 불만 5.1%로 매우 불만의 응답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1.5 노년기 남편을 둔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 영향 요인**

노년기남편을 둔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 인구 사회적·가족 관련 변인과 인적지 지 관련 변인, 사회서비스 변인들을 순차적으로 투입한 회귀분석결과는 다음의 <Table 6>과 같다.

먼저, 인구 사회적·가족 관련 변인을 투입한 모형1의 회귀분석 결과는 유의수준 .05수준에서 모형적합도 (F=2.030)는 유의하였고 수정된 R2값은 .069로 6.9%의 설명력을 보였다. 차별경험과 전반적 건강상태가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앞서 살펴본 그레이스정·임지영(2011)과 김현숙·김희재·오중환(2011)의 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다[2][8]. 두

**<Table 4> Social Service Experience Variables** (N=236)

Factors		Frequency	%	M (SD)
Korean language education	not taken	101	42.8	3.94 (1.35)
	completely useless	13	5.5	
	useless	2	0.8	
	normal(so so)	17	7.2	
	a little useful	22	9.3	
	very useful	54	22.9	
	<b>Total</b>	<b>209</b>	<b>88.6</b>	
Social Adaption Education	not taken	135	57.2	3.33 (1.35)
	completely useless	11	4.7	
	useless	5	2.1	
	normal(so so)	18	7.6	
	a little useful	18	7.6	
	very useful	16	6.8	
	<b>Total</b>	<b>203</b>	<b>86.0</b>	
Family Consultation Education	not taken	145	61.4	3.25 (1.50)
	completely useless	13	5.5	
	useless	2	0.8	
	normal(so so)	13	5.5	
	a little useful	12	5.1	
	very useful	15	6.4	
	<b>Total</b>	<b>200</b>	<b>84.7</b>	
Pregnancy and Childbirth Education	not taken	155	65.7	2.97 (1.60)
	completely useless	13	5.5	
	useless	4	1.7	
	normal(so so)	6	2.5	
	a little useful	9	3.8	
	very useful	10	4.2	
	<b>Total</b>	<b>197</b>	<b>83.5</b>	
Child Rearing Education	not taken	153	64.8	3.15 (1.62)
	completely useless	13	5.5	
	useless	2	0.8	
	normal(so so)	7	3.0	
	a little useful	9	3.8	
	very useful	13	5.5	
	<b>Total</b>	<b>197</b>	<b>83.5</b>	

**<Table 5> Marital Satisfaction** (N=236)

Factors		N(%)	M(SD)
Marital Satisfaction	very unsatisfied	0(0)	3.90 (0.9)
	unsatisfied	12(5.1)	
	normal	54(22.9)	
	satisfied	97(41.1)	
	very satisfied	62(26.3)	
	<b>Total</b>	<b>225(95.3)</b>	

요소 중 전반적 건강상태가( $\beta=.206, p<.05$ ) 결혼만족도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적지지 관련 변인을 투입한 모형2의 회귀분석 결과는 유의수준 .05수준에서 모형적합도( $F=2.338$ )는 유의하였고, 수정된 R2값은 .132로 모형의 설명력은 13.2%이다. 모형 1의 인구 사회적·가족 관련 변인만 투입했을 때 보다 7.3%의 설명력 증가를 보였다. 어려움이 있을 때, 의논할 사람이 없을 때 보다 연락할 한국인이 있을 경우, 모국가족에게 전혀 연락하지 않았을 때보다 년 1~3회 빈도로 연락하였을 때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의 심리적 적응과 생활만족도를 연구한 이주재·김순규(2010), 김경미(2012)의 연구결

과를 지지하며, 이웃의 부정적 작용이 생활만족도를 낮춘다고 보고한 박미정·엄명용(2009)과는 유사한 결과를 보여, 한국인 이웃과의 유대감이 결혼만족을 향상시킨다고 볼 수 있다[31][3][15].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 수혜 경험 변인을 투입한 모형3의 회귀분석결과 모형적합도 ( $F=1.984$ )는 유의하였고, 수정된 R2값은 .135로 13.5%의 설명력을 보였다. 인구 사회적·가족 관련 변인과 인적 지지요소 변인을 투입했을 때보다 설명력이 0.3% 증가하였다. 모든 변수가 투입된 최종모형에서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한국사회적응교육 수혜 경험( $\beta=-.305, p<.05$ )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사회적응교육을 받은 경우 노년기 남편을 둔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는 향상됨을 알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결

(Table 6) Effect variable of marital satisfaction

( N=236)

	model 1		model 2		model 3		
	B	$\beta$	B	$\beta$	B	$\beta$	
Nationality(0=China)	-.237	-.144	-.210	-.128	-.172	-.107	
Final education (0=Illiteracy)	middle	-.069	-.040	-.154	-.088	-.209	-.125
	high	-.131	-.075	-.189	-.108	-.229	-.131
	over college	-.381	-.151	-.435	-.176	-.599	-.246 *
Employed status(0=No)	-.114	-.068	-.223	-.132	-.163	-.099	
Demographic Variables and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Yes=0, No=1)	.310	.167 *	.345	.182 *	.430	.234 **
Familial Relations Variables	Korean language Proficiency	-.112	-.151	-.078	-.103	-.043	-.059
	Health condition	.160	.206 *	.116	.150	.064	.083
	Spouse's Employed status	.070	.041	.132	.077	.159	.096
	Marriage by a match maker (No=0, Yes=1)	-.058	-.033	.020	.012	-.089	-.052
	Having Children (No=0, Yes=1)	.028	.016	-.023	-.013	-.084	-.048
The age gap with a life partner(Year)	.006	.100	.009	.146	.010	.159	
Human Resources and Support Variables	Advisor when having difficulties (Isolate=0)			.228	.135	.157	.096
	homeland type			.509	.297 **	.377	.227
	korean type			.398	.123	.400	.120
	mixed type			.790	.222 *	.850	.256 *
Contact frequency with families in homeland (None =0)	more than 1~3/yr.			.226	.137	.280	.172
	more than 1~2/mo.			.492	.296	.590	.366 *
	more than 1~2/wk.						
Social Service Experience Variables (Taken=0)	Korean Language Education					.243	.152
	Social Adaption Education					-.531	-.305 *
	family consultation and education					.285	.159
	pregnancy and childbirth education					-.622	-.310
	Child Rearing Education					.409	.204
Constant			3.580***		2.883***		3.148***
F			2.030*		2.338**		1.984**
R <sup>2</sup> (Adj R <sup>2</sup> )			.136(.069)		.231(.132)		.272(.135)

# p<.1 \* p<.05, \*\* p<.01, \*\*\* p<.001

혼만족 선행연구 중 본 연구와 같이 지원센터를 통한 기본서비스 5가지의 영향력을 개별로 살펴본 것은 없으나, 결혼생활교육참여경험과 서비스이용경험은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한 양순미·정현숙(2006), 원서진·송인옥(2011)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22][25]. 그러나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킨다고 보고한 연영란·양 수(2012)와는 유사한 결과를 보여[24], 사회서비스수혜경험이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 5. 결론 및 제언

연구목적에 따라 분석된 결과로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기 남편을 둔 결혼이주여성들이 어려울 때 의논하는 주 상대자는 모국인이 가장 많은 편이나, 유사한 비율로 한국인이 주 의논 상대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논 상대가 전혀 없다는 '고립형'도 상당수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모국가족과의 연락은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월 1~2회 이상은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수이기는 하나 전혀 연락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의논 상대가 전혀 없고 모국가족과도 전혀 연락이 없는 노년기남편을 둔 결혼이주여성들이 향후 남편의 고령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경우 실질적 도움과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다. 사회서비스 수혜경험은 한국어 교육을 가장 많이 받았으며 도움정도도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국생활적응교육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신과 출산에 관한 교육과 자녀양육에 관한 서비스수혜경험이 가장 낮았으며 도움정도 또한 다른 서비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년기 남편을 둔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 수준은 중간 이상으로 만족에 가까운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기간과 결혼만족은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5], 실제로 2006년에 비해 2009년도 조사에서 배우자만족수준은 소폭 감소된 경향을 보였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이혼율과 황혼기 이혼이 신혼기 이혼을 넘어서는 최근의 사회현상 [46]들을 고려했을 때 노년기 남편을 둔 다문화가족의 향

후 안정적 결혼생활유지를 위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최종적으로 노년기 남편을 둔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차별경험이 없을 때, 건강상태가 좋을 때, 어려울 때 의논 상대가 한국인일 때에, 모국가족연락빈도가 년 1~3회 연락을 취할 경우, 그리고 사회서비스 수혜경험 중에서는 한국사회적응교육을 받은 경우 결혼만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실천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농촌 지역의 마을회관과 다중시설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인권운동'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자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하도록 명시되어있다. 농촌총각의 국제결혼이 많은 관계로 결혼이주여성들은 농촌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수치는 남성결혼이민자의 3배 정도 많다[5]. 한국의 농촌은 젊은 사람에 비해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주로 차별을 경험한다면 농촌 지역의 이웃어른들로 인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본다.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새로운 변화를 대하는 데 있어서 저항과 편견이 많은 편인데, 일방적인 홍보방법들로는 노인들의 이해와 변화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직접 찾아가는 대면교육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자연스럽게 불러올 것이다. 또한 '찾아가는 인권강사'들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등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면 그들의 건강관리에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여겨진다.

둘째, 다문화 전문가 양성교육과 역량 강화 교육에 상담 관련 훈련의 집중적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시 한국인과 의논할 경우 결혼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을 돕고 마음 편히 어려움을 의논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한국인은 공공기관을 통해 그들을 돕는 관련 전문가들일 것이다. 현재 이들의 보수교육은 연간 8시간으로 집합·온라인 교육 등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주 교육으로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정책, 비영리기관운영관리에 관한 내용만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종사

자들은 상담가로서의 한계를 인식하며 상담과 관련된 특수한 역량과 능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1]. 따라서 다문화 전문가들과 봉사자, 교육자들이 자신들의 주 업무 외에 결혼이주여성들의 정서적 지원을 돕기 위한 상담가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교육 내용과 교육환경, 교육기간에 대해 프로그램구성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노년기 남편을 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사회적응 교육서비스 제공 시 결혼만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구성을 한다면 교육의 효과와 함께 효율적 측면도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면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시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교육에 배우자를 참여시킨다면 남편은 외국인 아내의 타문화적응 어려움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아내는 교육에 함께 참여하는 남편에 대해 친근감이 형성될 수 있어 교육의 효과와 함께 결혼만족감 향상으로 이어져 안정적인 한국사회적응과정이 될 것이다. 실제 부부동반 교육 참여가 결혼만족을 향상시키며,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의 가족 참여 정도가 결혼생활 효능감을 높인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6][9].

본 연구결과와 2006년, 2009년 두 차례의 전국단위 조사결과 모두 한국어교육서비스 참여경험이 가장 높으며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 문화관련 서비스나 한국사회적응교육, 가족상담 및 교육 관련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이용경험은 한국어교육에 비해 낮은 비율이나 이용자의 만족도는 높다는 특이한 점이 있다. 언어교육의 경우는 교육기간이 길고 개인차도 커서 교육의 효과를 빨리 인식하기 어려운 편이나, 한국사회적응교육의 경우는 생소한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결혼생활에 필요한 실제적인 내용이 다루어짐으로 유용성이 높은 교육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족 상담과 교육은 가족 내 문제와 갈등이 있을 때 지원기관을 통한 도움접근이 바로 가능하고 문제 해결을 통해 교육효과를 더 극적으로 받아들이기 가능성이 높아 비록 이용경험은 한국어 교육에 비해 적으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상담 관련 서비스의 필요성은 다문화가정의 사회적응을 위해 매우 필요한 서비스로 언급되고 있다[20]. 그러므로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생활정착과 적응에 주요한 서비스로 언급되는 사회적응교육, 가족 상담과 교육 관련 서비스 등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 모색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현재 시점과 다소 차이가 있는 2009년에 실시한 전국데이터를 사용하였다. 2012년 후반 연구 설계 당시 다문화가족 대상의 전국데이터로는 가장 최근 자료가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데이터 뿐 이어서 부득이 현재와는 차이가 있음을 밝힌다. 또한, 이미 조사된 한정된 문항에서 관련 변수를 선택하였으므로 결혼만족 결정요인의 다차원적인 부분의 고려가 부족하였음을 밝힌다. 그리고 연구대상자선별을 현재 결혼생활 중인 경우를 추출하였기에, 이미 이혼 혹은 별거 상태의 경우를 포함하지 않았기에 연구결과 활용에 있어서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둘째, 인적지지도소 변인 선택에서 함께 살거나 자주 교류할 것으로 여겨지는 배우자 측 가족 관련 변인과 다양한 사회관계망 관련 변인을 포함하지 못하였으므로 인적지지도소의 영향력검증에 있어 일부 제한되었음을 밝힌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관계망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혹은 국제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선행연구들과는 차별화하여 다문화가족의 일부인 남편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만을 선택하여 연구하였으므로 모든 결혼이주여성에게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음을 밝힌다.

연구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국제결혼이 급증한지 20여 년이 지났다.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들이 적응과 정착에 초점을 두었다면, 한국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함께 이제는 다문화가족의 고령화에 관한 거시적 관점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예측되는 다문화가족 내의 복합된 양상의 노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자 탐색적 연구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보고 후속 연구자들에게 2012년에 실시한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데이터 등 축적된 자료를 이용하여 좀 더 면밀한 노년기 다문화가족 대상의 후속연구를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REFERENCES

- [1] KiJungKang & B-J Kang, Multicultural Educatio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Family

- Integrated Status and Policy proposals, Journal Korean of Home Management Association Conference Kit, pp. 121-138, 2012.
- [2] Grace H. Chung & Lim, J. Y. Comparison of Martial Satisfaction between Immigrant Wives and Korean Wives of Korean Me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49, No. 5, pp. 33-48, 2011.
- [3] .Kim, K. Married Immigrant Women's Social Networks and Life Satisfaction in Korea: THE Case of Wmen from China Vietnam, and Japan-,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ol. 35, No. 2, pp. 185-208, 2012.
- [4] Kim, D.-S. Spousal Dissimilarity in Age and Education and Marital Stability among Transnational Coupes in Korea: A Test of the Transnational Openness Hypothosi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ol, 35, No. 1, pp.1-30, 2012.
- [5] Ministry of Health & Welfare, Report on the National Multicultural Families Survey of 2009, 2010.
- [6] Kim, E.-K. The Factors Related to the Marital Satisfaction of the Foreign Wives who Live in Small Town, Journal Korean of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26, No. 6, pp. 83-94, 2008.
- [7] Kim, E. H. & Lee, E. & Kim, M.-J. & Park, D. Y. & Lee, S. H. Effects of and Educational Program of Pregnancy and Delivery on Pregnancy related Knowledge, Newborn Care Knowledge, and Postpartum Care Self-efficacy of Marriage Immigrant Women, JKorean Acad Nurs, Vol, 40, No. 1, pp. 78-87, 2010.
- [8] Hyun-Suk Kim & Hee-Jae Kim & Joon-Hwan Oh. The Determinants of Marital Quality among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 The Importance of Life Stress and Social Support,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ol. 34, No. 1, pp. 27-51, 2011.
- [9] Kim, H.-W. & Lim, C. A Study on the Influence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Services on the Marital Efficacy of Marriage Migrant Women,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7, No. 3, pp. 27-53, 2012.
- [10] Kim, H.-M. & Park, J.-Y. Study of Variable Factors Affecting Couple's Martial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31, No. 3, pp. 125-140, 2013.
- [11] Kim, Hyo soon & Um, Myoung yong,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Marital Satisfaction in Remarried Couples with Adolescent Children at Home,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 21, No. 21, pp. 75-102, 2007.
- [12] Nam, I. S. & Ahn, S. Comparison of Stress, Social Support, and Marital Satisfaction between Married Immigrant Women in Urban and Rural Areas, Korean J Women Health Nurs, Vol, 17, No. 2, pp.99-108, 2011.
- [13] Nho, Choong-Rai & Kang, Hyun-Ju & Choi, Min-Ji, Predictive factors for marital satisfaction among, Korean men married to Vietnamese women ,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 30, pp. 105-134, 2010.
- [14] Mo, Seon Hee, Exploratory study on marital relationship and marital satisfaction in later life,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 2, No.2, pp.1-15, 1994.
- [15] Park, Mi Jeong & Um, Myung-Yong, A Study on the Social Relations and Life Satisfaction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Korean Journal of Korean Family Studies Association, Vol, 14, No. 2, pp.1-26, 2009.
- [16] Park, S.-S. The Evaluation of an Education Program for the Marital Relationship Enhancement of a Newlywed Couple : With a Focus on an Education Program for Newlywed Couples at a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Journal of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31, No. 1, pp.85-98, 2013.
- [17] Park, Jung-Sook & Park, Ok-Im & Kim, Jin-Hee. A Study on Family Conflict and Life Satisfaction for Immigrant Women, Vol, 25, No. 6, pp.59-70, 2007.
- [18] Park, Chung-Sun, A Study on the Formation Process of Grandparents-grandchildren Families,

- Raising Experiences, and Life Satisfaction of Grandmother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5, No. 2 pp. 105-125, 2010.
- [19] Taeyoung Park, Marital Satisfaction Measurement Tool Review and Evaluation, *Korea Institute of Christian Counseling Treatment*, Vol, 1, pp.105-140, 2000.
- [20] Seo, J. & Choi, H. (2012), Determinants of Family Counseling Service Utilization of Internationally Married Migrant Women,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Vol, 28, No. 3, pp. 23-43, 2012.
- [21] Youn-Jung Son & Moon-Sook You, The Related Factors on the Marital Satisfaction in Working Married Women, *Journal of Korean Soc Matern Child Health* Vol, 12, No. 2, pp. 143-154, 2008.
- [22] Yang, Soon Mi & Chung, Hyun Sook, Variables affecting the adjustment of marital life and satisfac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couple of rural in Korea, *Korea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s*, Vol. 11, No. 3, pp. 223-252, 2006.
- [23]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Marriage-Based Immigrants and Their Families in Korea: Current Status and Policy Measures, 2006.
- [24] Yeun, T.-R. & Yang, S. Effects of a Marital Relationship Enrichment Program on Communication, Conflict Resolu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in Multicultural Couple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Vol, 21, No. 3, pp. 250-261, 2012.
- [25] Won, S.-J. & Song, I.-U. The Effect of Personal, Cultural, and Social Factors on the Marital Satisfaction of Marriage Migrant Women in Korea,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6, No. 2, pp. 95-113, 2011.
- [26] Lee, M.-Y. & Kang, K.-J. (2007), Effects of a Reality Therapy Group Program for Improving the Self-Esteem and Marriage Satisfaction of Migrant Women,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2, No. 2, pp.29-44, 2007.
- [27] Lee, Sung-Hee & Kim, Hyeon-Su Cho, & Sung-Kyoung, A Study on Married Immigrant Women's Health of Family-of-Origin, Mental Health, and Marital Stability,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7, No. 3, pp. 167-189, 2012.
- [28] Lee, O.-B. A Study based on the Grounded Theory about Social Service Utilization of Interracially Married Female Immigrant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4, No. 4, pp. 25-56, 2009.
- [29] Yong Gyun Lee,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ocio-cultural Networks of Female Marriage Migrant: The case of Boeun and Yangpyeong,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Vol, 10, No. 2, pp. 35-51, 2007.
- [30] Lee, Jung - Sook, An Analysis of the Factors Influencing Marital Satisfaction of Migrants Married Women, Graduate School Doctoral Dissertation Wonkwang University, 2010.
- [31] Lee, C.-J. & Kim, S.-G. Social Network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of Female Foreign Immigrants in Korea,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5, No. 4, pp.73-91, 2010.
- [32] Lee, Choo-Jae & Kim, Soon-Gyu, The Effect of Linguistic Ability and Social Support on Adjustment among Women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5 No. 1, pp. 5-20, 2010.
- [33] Hye-Kyung Lee & Hae-In Jeon, The Effect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on Marital Satisfaction in Married Immigrant Women: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Acculturative Stres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8, No. 4, pp. 413-432, 2013.
- [34] Jeon, E.-J. & Kim, E.-S. Variables Influencing Marital Satisfaction of Newly Married Men and wome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31, No. 1, pp. 78-83, 2013.
- [35] Hye-Seong Jeon & Mia Seo, Effects of Conjugal Power and Gender Pole Attitudes on Marital Satisfaction of Middle-aged Couples,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a collection of learned papers, Vol, 12, No. 4, pp. 349-357, 2012.
- [36] Chung, Hyunsook, A Theoretical Review for developing a Korean Type Marital Satisfaction

- Scale, Korean Journal of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 39, No. 1, pp.89-106, 2001.
- [37] Cho, S.-H. & Park, So-Young, Factors affecting marital satisfaction of women,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Vol, 29, No. 8, pp. 149-174, 2010.
- [38] Joe Azure, Findings from the Marriage and Family Life on the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Health-welfare Policy Forum, 2010.
- [39] Cho. H. Some Determinants of Marital Satisfaction,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Vol, 37, No. 1, pp. 91-115, 2003.
- [40] Jung-Hae, Choi, Marital Satisfaction and Family Strengths in Dual-Income Teachers, Korea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Vol, 18, No. 3, pp. 163-173, 2006.
- [41] Choi, Jeong-Hye, A Study on Marital Satisfaction and Family Strengths in Commuting Couples-Comparison of Husband and wife Commuting Couples, Journal of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43, No. 30, pp. 11-26, 2005.
- [42] Choi, Jeong-Hye, A Study Stress and Family Strength of Immigrant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6, No.4, pp. 29-46, 2001.
- [43] Statistics Korea. <http://www.kostat.go.kr>
- [44] Statistics Korea, 2011 Multicultural population dynamics press releases, 2012.
- [45] Statistics Korea, 2011 Marriage/divorce statistics press releases, 2012.
- [46] Statistics Korea, 2012 Marriage/divorce statistics press releases, 2013.
- [47] Statistics Korea, future population projection, 2011.
- [48] Support center for multi-cultural families Medium · Long-term Development Plan,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2012. 12. 31.
- [49] Hwang, JongGui, Factors associated with Marital satisfaction and Stability of Married Men and Women, Korean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Vol, 18, No. 4, pp. 825-840, 2009.
- [50] CEO Information(No.853)-Multicultural policy: To Harmony from Assimilation,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2012.
- [51] Yang, J. D. & Kim, C. T.,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Foreign Married Immigrated Lady's Marriage Satisfaction in the Rural Community, The Korean welfare administration society, The Korean Welfare Administration society, Vol. 16, No. 1, pp. 1~20, 2006.
- [52] Choi, J.-H, A Study on the Marital Satisfaction and Relative Variables of International Women as Marriage Immigrant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7, No. 4, pp. 153~171, 2012.
- [53] Byun, M.-H. & Kang, K.-J. Factors of Married Couples Influencing the Marital Satisfaction of Wives in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5, No. 2, pp. 127~141, 2010.
- [54] Yang, Soon Mi & Chung, Hyun Sook, Variables affecting the adjustment of marital life and satisfac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couple of rural in Korea, Korea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s, Vol. 11, No. 3, pp. 223-252, 2006.

**이 명 화(Lee, Myeong-Hwa)**



- 2011년 8월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석사)
- 2012년 2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노인복지학과 박사과정
- 2014년 9월 ~ 현재 :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노인복지학과 시간강사

- 관심분야 : 노인복지, 다문화가족, 건강가정
- E-Mail : mha66@hanmail.net

**이 윤 정 (Lee, Yoon-Jung)**



- 1994년 2월 : 성신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가정학사)
- 1996년 8월 : 성신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가정학 석사)
- 2003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 인간발달학과(이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노인복지학 전공 조교수

- 관심분야 :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노인복지, 비영리조직
- E-Mail : yoon2525@hanmail.net